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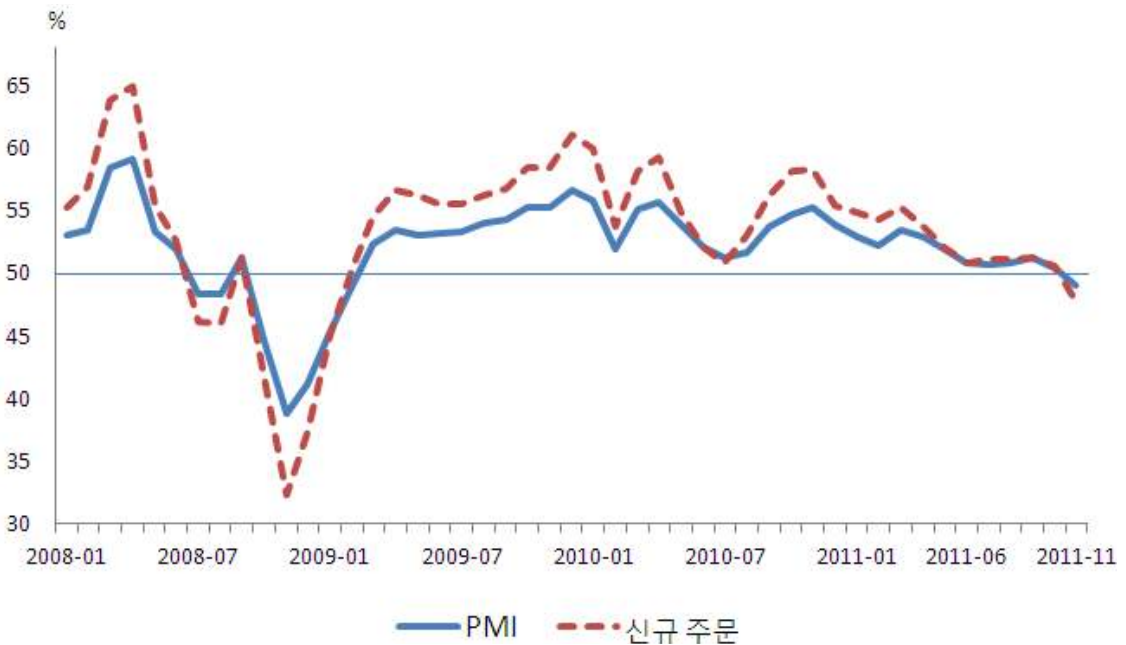
# 1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하락

왕양비 연구원

■ 12월 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0으로 50.0에 해당하는 임계점을 하회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 국가통계국과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and Purchasing)의 연합 보고에 따르면 1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49.0로 나타나 2009년 2월 이래 처음으로 임계점인 50.0을 하회함.
-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감소와 중국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중국 제조업의 주문량이 지속적 하락세를 보임.

〈그림 1〉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신규 주문 추이(2008년 1월~현재)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물류 및 구매연합회(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and Purchasing).

- 또한, 12월 1일 HSBC가 발표한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공식적 수치보다 더 낮은 47.7이며, 2009년 3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대내외 수요가 줄어들면서 산업생산 증가율도 연 11~12%로 이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11월 PMI지수 하락으로 중국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분석함.
- 11월 30일 중국 중앙은행이 기준율을 0.5%p 인하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 통화정책의 중심이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전이된 것을 의미함.
- 12월 5일에 단행되는 금번 기준율 인하는 2008년 12월 이래 처음이며, 동 기준율은 21.5%에서 21.0%로 하락할 것임.
  - 중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기준율과 기준이자율을 각각 8회, 5회 인상함.
  - 10월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전년동월대비)로 4개월 연속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9월보다 0.6%p 하락하여 현저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 정부의 통화긴축정책 완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됨.
  - 경제전망기관들이 중국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예측을 연이어 내놓던 가운데,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공식 발표 전날인 11월 30일 기준율이 인하된 것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빠른 것이며, 이는 중국 통화당국의 제조업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악화 우려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금번 기준율 인하로 중국 금융시장에 4,000억 위안(약 629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제공될 것임.

(화선 재경, WSJ, 중국인민은행, 12/01 등)